

류명호 꽃마름 대표 서구아너스 가입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 지역사회 나눔으로 보답

“착한도시 서구민들이 우리 상인들과 골목경제를 살렸으니 이제 지역사회에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5일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에 특별한 신규 회원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동천동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자 꽃마름 광주동림점 운영을 하고 있는 류명호 대표다.

류 대표는 “서구의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로 큰 힘을 얻은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에 받은 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광주 서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를 119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를 선포했다. 이로써 서구 관내 1만1천여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

해져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골목상권이 활기를 띄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최대 20~30%까지 증가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류 대표는 동천동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으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골목경제 119 정책의 성과를 최일선에서 느끼고 있다. “오랜 시간 경기침체로 힘들어했던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며 “착한 서구민들 덕분에 골목이 활기를 되찾은만큼 나도 서구아너스 활동으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서구아너스'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공공영역에서 채우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불과 10개월 만에 3천만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회원이 90명을 돌파



했으며 총 약정액도 31억원을 초과했다. 서구아너스 회원들은 단순 기부를 넘어 ▲폐지수집 어르신 '쉽 지원비' 지원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장학금 ▲다문화가정 외갓집 보내주기 ▲장애인 부부 결혼식 지원 등 다양한 나눔 실천으로 공공이 놓치지 쉬운 복지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골목경제를 살리는 일도, 복지틈새를 메우는 일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며 “정책적 혜택을 사회적 나눔으로 되돌려주시는 류명호 대표의 선한 영향력이 골목마다 확산돼 ‘착한도시 서구, 행복한 공동체’ 실현의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영암군보건소, 영암읍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

'치매에도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구호로 오일시장서 인식 개선 캠페인

영암군보건소가 15일 영암읍 오일시장에서 '치매에도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구호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된 9월 21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치매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인식 개선, 조기 검진 안내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심혈관질환과 감염병 예방, 금

연 및 정신건강 상담도 함께 병행했다. 영암군보건소는 이번 오일시장 캠페인에 앞서 모바일 건강 플랫폼 앱인 '워크온'을 활용한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도 추진하고 있다.

박수희 영암군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을 넘어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영암군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강진읍지사협, '행복영화관' 열어 주민과 함께 문화 나눔

어르신·마을주민·위원 43명 모여 영화관람으로 행복한 하루

강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명홍, 임창복)가 지난 12일, '작은 나눔, 큰 감동! 행복영화관' 사업을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를 선물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쁨마을 주민 18명과 읍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5명, 그리고 지사협 위원 10명 등 총 43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따뜻한 점심 식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었고, 강진영화관을 대관해 다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영화관'은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

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영화관람이라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웃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늘 무료했는데,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니 젊은 시절 동네 극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기억이 떠올라 정말 행복했다”며 “바쁜 농사일로 문화생활은 늘 뒷전이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 좋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창복 공동위원장은 “행복영화관은 단



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문화·복지·돌봄이 어우러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복영화관은 소소한 나눔이 모여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며, 협의체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며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 노안면, 익명의 후원자 백미 500kg 기탁

수년째 이어온 이웃사랑 실천으로 훈훈한 나눔 문화 확산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면장 문혜인)은 최근 한 마을 주민인 익명의 후원자가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백미 10kg 50포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안면은 기부받은 백미를 노안면 내 취약계층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원자는 수년째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매년 크고 작은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후원자는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의 위로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작은 나눔이지만 꾸준히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혜인 노안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전해주시는 마음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군 학교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안전 확보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학교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함평군은 15일 “학교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1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는 대상 가구를 찾아 청소와 방역은 물론, 싱크대 교체 등 생활환경 전반을 정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마련했다.

송주환 학교면 복지기동대장은 “어려



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안심동행서비스' 시행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본부장 이영희, 이하 공단)는 국가건강검진 장기미수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안심동행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지원, ▲검진동행 매니저, ▲의료수어통역(청각장애인 대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통약자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동구보건소가 협력하여 진행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여러 유관기관이 협업체로 추진중인 ‘장애인 건강검진 안심동행서비스’는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혼자 갈 수 없었던 의료 사각지대의 장애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장성군 Jangseong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